



하의도 생가 조문 행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열기가 전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거 이틀째인 19일 신안군 하의도 후광리 생가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의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일 國葬’으로 치른다

이대통령 결정...23일 국회광장서 영결식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기사 ▶ 2·3·4·5·6·7·8·13·16·17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장(國葬)’으로 임수된다.

장례 기간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됐으며,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또 빈소와 분향소, 영결식 장소가 국회 광장으로 결정됐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9일 “국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임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임 중인 1979년 10월 26일 서

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만의 일이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으나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애초 관례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측에 국민장을 권유했으나 민주당과 유족 측은 고인의 민주화 및 남북 화해 노력과 업적 등을 감안, 국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임동욱기자 tuim@

北 “고위급 조의 방문단 파견”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김 전 대통령 측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내 임시빈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아태평화위는 ‘김대중 평화센터’의 임동원 전 장관 앞으로 조의방문단 파견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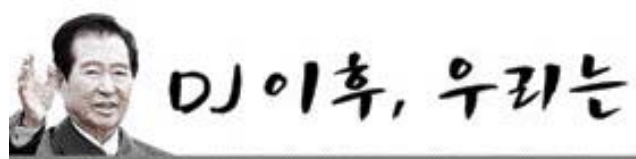
북한 아태평화위는 김대중 평화센터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보도되는 즉시 자신의 존함으로 된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조문단은 조선노동당 비서 및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되며 김 전 대통령 장례식 직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화환을 갖고 방문할 예정이다.

북측은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박 의원 등 김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존중해 방문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며, 체류기간은 당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박2일간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발행된 신문 2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문을 실었고, 4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소통과 통합, 이젠 남은자의 몫



① 화해와 용서 큰 뜻 잇자

민주화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마지막까지 ‘행동하는 양심’의 길을 걸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37일간의 병상 투쟁에 이은 서거는 동서화합, 이념 갈등 극복, 남북 화해 등의 화두를 제시하며 한국 사회에 ‘화해와 용서’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은 병상 투쟁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극적 화해를 이뤄내면서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동서화합’의 화두를 던졌다.

비록 호남과 영남을 대표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직접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병원을 찾아 화해를 공식 선언, 지난 87년 야권 분열 후 22년간 계속됐던 반목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 몸소 실천 반목·갈등 끝내고 대화합 계기로

때맞춰 두 전직 대통령을 따라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협(민주화추진협의회)을 구성했던 동교동계와 상동계 인사들도 지난 11일 세브란스 병원에 모여 손을 맞잡고 지역주의 해소에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병상 투쟁은 사형

선고를 안겨줬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와 악연 고리도 끊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문병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 시절 전직 대통령들이 제일 행복했다”며 화해와 용서를 몸소 실천했던 김 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병상 투쟁과 서거는 갈등의 끝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었다.

한평생 지역주의 타파 몸소 실천 반목·갈등 끝내고 대화합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병문안에 나선 것을 비롯, 여야 지도부와 유력 정치인들은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서거한 세브란스 병원내에 모여 ‘화해와 용서’를 통한 갈등 극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진보·민주 진영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화해와 용서’라

는 시대적 흐름이 형성됐다는 점은 보수 진영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중도 실용을 기반으로 한 친(親)서민 정책을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여와 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도 화해의 햇살을 드리우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화환과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비서부장 등 5명의 조의방문단을 1박2일 일정으로 파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대북 제안과 현대 아산 현정은 회장의 북한과의 합의 도출 이후 처음으로 북측과의 고위급 교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문단 파견은 남북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7분56초 남기고 나로호 발사 중지

기술적 결함으로...수일내 재발사

우주강대국 진입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가 중지됐다. 하지만 이번 중지가 나로호 발사 실패가 아닌 일부 기술적 결함이 원인이기 때문에 한·러 기술진에 의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수일내 재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8면〉

19일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나로우주센터 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발사

체의 밸브들을 작동시키는 고압탱크의 압력저하가 발사 자동 중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한·러 기술진이 분석을 시작했으나 철저한 분석 후 발사일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발사 중지에도 따라 한·러 기술진은 1단 로켓에 채워넣었던 130t의 액체 연료도 다시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은 최소 2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발사 일정도 최소 2~3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발사체를 발사대에서 내린 후 점검할 것인지 세운 상태에서 점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발사일을 재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로호는 발사 2시간 전부터 연료주입이 시작됐고 오후 3시53분에는 1단 추진체에 케로신, 4시5분에 액체산소 충전을 끝냈다. 그러나 카운트다운 7분56초를 남겨놓고 중 단 로켓에 채워넣었던 130t의 액체 연료도 다시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이 작업은 최소 2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발사 일정도 최소 2~3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나로우주센터=강필성기자 kps@

1924. 1. 6 - 2009. 8. 18

故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린정리식당

임직원일동

☎ 250-4455